

【논 문】

##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

- 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

김 지 영\*

### ┃ 차 례 ┃

1. 머리말
2. 660년 이전 거란의 동향
3. 660년 이후 거란의 동향 변화
4. 맺음말

### 국문초록

7세기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서 거란(契丹)을 포함한 북방 제민족(諸民族)들의 동향은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거란의 경우는 지리적인 면에서 고구려와 당의 최전방이라는 점에서나 말갈(靺鞨)과 함께 때때로 고구려병의 일부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타 다른 북방 민족들보다 그 중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당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와 당, 돌궐(突厥)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630년 돌궐의 힐리가한(詰利可汗) 생포를 전후해 당은 북방 민족들에 대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고구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개소문 정권이 등장하는 642년 이전까지는 고구려와 당은 일단 우호적인 외교책을 통해 전쟁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연개소문 집권 이후 강경한 당의 정벌의지로 인해 당과의 외교관계는 악화되어 갈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구려 정벌의 명분이 마련된 642년에도 당은 북쪽 설연타(薛延陀)의 대두 등으로 인한 북방의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쉽사리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당이 새로운 중국의 통일왕조로써 주변 국가들에 대한 당 중심의 세력 재편을 위해서 고구려를 반드시 정벌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에 645년 당 태종의 친정이 단행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주필산(駐蹕山)전투 이후 급박한 정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설연타에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인지 혹은 고구려가 당태종의 공격을 무사히 막아낸 결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 당 태종이 고구려에서 군대를 미처 다 돌리기도 전에 설연타의 이반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은 일부의 병력을 고구려 전선에서 빼 내어 설연타와의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은 고구려로 하여금 북방 제민족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섭을 진행하게 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645년 이후 계속되는 당과의 전투로 인해 고구려 내부의 자원은 고갈되어 갔고, 연개소문 독재로 인한 정치적 모순 역시 증가되면서 고구려 내부의 결속이 약화되어 갔다. 그 결과 66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고구려 내부 분열과 이탈이 가속화되어 갔으며, 그럴수록 고구려는 주변 국가나 북방 제 민족들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645년 이후 지속적인 당의 충공세에도 무너지지 않은 고구려의 군사력은 660년을 전후하여 당 중앙의 혼란으로 인해 혹은 북방 제 민족에 대한 지나친 정발로 인해 당에 대한 불만을 지닌 북방 제 민족들이 고구려의 편으로 돌아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660년 이후 거란 및 해(奚), 철록 제부(鐵勒 諸部) 등 북방 제민족의 대다수가 당에서 이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백제 정벌을 전후하여 고구려를 직접 공격하던 당은 일부의 병력을 대(對)고구려 전선에서 빼내어 북방에 투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거란의 이반은 645년 이후 고구려 공격에 빈번하게 동원되던 거란 병이 더 이상 고구려 공격에 동원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구려 공격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북쪽 후방 지역까지 당군이 공격하고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것은 결국 당군 전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당과의 전투에서 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고구려의 지속적인 외교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고구려는 물적 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내부 결속이 약화되어 이탈이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뛰어난 외교정책의 구사로 연개소문 아들들의 내분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당의 충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 1. 머리말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에 있어 거란을 포함한 북방 제민족들의 동향은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거란과 말갈은 단순히 당과의 전쟁에서 직접 고구려 혹은 당측에 군사를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 제민족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여타 다른 북방 민족들은 고구려와 연합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직접 고구려군의 일부를 구성해서 대당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빈번히 당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제민족들의 동향은 종종 당군의 고구려 정벌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직접 고구려군에 합세해 당군에 대항한 거란과 말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시기 말갈관련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상당한 축적을 이루고 있다.<sup>1)</sup> 반면 거란과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적을 뿐 아니라 면밀한 분석이 아닌 대체적인 관계 설정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sup>2)</sup>

기존 연구 성과 중 거란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과 660년 이후 거란의 당으로부터의 이반을 다룬 이성제의 논문과<sup>3)</sup> 660년 이후 거란과 해의 이반

- 1) 한규철, 2005, 「주민구성으로 본 계승관계」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 연구총서 7』, 고구려연구재단 ; 김종복, 2005, 「高句麗 멸망 전후의 靺鞨 동향」 『북방사논총』 5 ; 李仁哲, 2004, 「7세기 高句麗 軍事活動의 주요 變數」 『신라문화』 24 ; 金賢淑, 2003, 「6~7세기 高句麗史」에서의 靺鞨」 『강좌한국고대사』 10 ; 李仁哲, 2001, 「6~7世紀의 靺鞨」 『국사관논총』 95 ; 金善昱, 1985,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 - 靺鞨을 中心으로」 『백제연구』 16 ; 손영중, 1995 『고구려사』, 민족문화 ;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 研究」 『부산사학』 14 · 15

- 2) 대체적으로 당과의 전쟁 시기에 부분적으로 거란과의 관계를 언급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金鎮漢, 2010,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 노태돈, 2009, 『삼국통일 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 姜仙, 2003, 「高句麗와 北方民族의 關係 연구」,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ヤ』, 名著刊行會 ; 金浩東, 1993, 「唐의 靺鞨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좀 더 구체적으로 거란과 고구려의 관계를 다룬 것은 다음의 논문들 정도이다.

李在成,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 중국고중세사학회 ; 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 對隋·唐戰爭期 契丹의 動向과 그 意味」 『북방사논총』 5호, 고구려연구재단 ; 李在成, 1996,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이유와 고구려로의 내부 및 이들에 대한 고구려의 포용정책에 대해 언급한 이재성의 논문이<sup>4)</sup> 주목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있어 거란이 시종일관 당 측에 속해 있었다거나 남생이 거란병을 이끌고 당에 망명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해 고구려 측에 속해 있었다는 식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이성제와 이재성의 논문은 중국측 사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란이 660년 이후 당에서 이반해 나왔음을 밝히고 있어 거란의 동향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논문 모두 660년 거란의 이반을 단순히 당과 거란과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고구려의 적극적 개입으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다.

660년 거란의 당으로부터의 이반 이후 거란과 고구려의 관계변화를 보여주는 사료는 남생 망명 시 함께 움직인 거란병에 관한 기록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분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거란의 이반이 이루어진 660년이라는 시점이 당의 백제 정벌과 바로 뒤이은 고구려 공격에서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감안할 때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구려의 외교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660년 이후 거란과 고구려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당 측의 사료상에서 변병으로서의 거란병이 보이지 않는 점과 당의 고구려 침공로 중 부여도의 신설이라는 변화를 통해 상정해 보고자 한다.

3) 이성제, 2005, 위의 논문.

4) 李在成, 2011, 앞의 논문.

## 2. 660년 이전 거란의 동향<sup>5)</sup>

돌궐과 수·당이 거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듯, 고구려 역시 거란에게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또 하나의 세력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고구려와 거란의 교섭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로는 조금 앞선 시기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① (553) 천보 4년 9월, 거란이 변경을 범하니 문선제가 친히 북으로 이적을 토벌하였는데, 평주에 이르러 마침내 서쪽 長壘에 이르렀다. 司徒 潘相樂에게 조서를 내려 정예기병 5천을 이끌고 東道로부터 靑山으로 향하도록 하고, 다시 安德王 韓軌에게 조서로써 정기 4천을 이끌고 동쪽을 향하도록 하여 거란의 도주로를 끊었다. 황제가 친히 산을 넘어 크게 쳐서 이기니, 포로가 10여만구, 잡축이 수십만 두었다. 相樂이 또 청산에서 거란 별부를 대파하였다. 살아있는 포로는 모두 諸州에 나누어 두었다. **그 후에 다시 돌궐에게 쫓겨 또 1만가는 고려에 의탁했다.**<sup>6)</sup>

1-② (605) 거란은 본래 돌궐을 섬겨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雲起가 이미 그 경계에 들어가서 **돌궐로 하여금 고려와 교역하기 위하여 柳城郡으로 향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고** 營중에 隋使가 있음을 말하지 말게 하고 감히 누설하는 자는 참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거란이 방비하지 않았다. 적의 영과 백리의 거리에서 거짓으로 유인하여 남쪽으로 건너갔다가, 밤에 다시 돌아와 영과 50리 거리에서 진을 치고 유숙하니 거란이 알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일제히 일어나 기병을 달려 습격하여 그 남녀 4만구를 모두 사로잡았다. 여자

5) 여기에서는 거란이 수에서 이반해 나가는 600년 이후의 동향부터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그 이전의 고구려와 수의 관계에 있어서의 거란의 동향은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 46호 참고.

6) 『北史』 94 列傳82 契丹. “天保四年九月, 契丹犯塞, 文宣帝親戎北討 至平州 遂西趣長壘 詔司徒潘相樂帥精騎五千 自東道趣靑山 復詔安德王韓軌帥精騎四千東趣 斷契丹走路 帝親踰山嶺奮擊大破之 虜十餘萬口 雜畜數十萬頭 相樂又於靑山大破契丹別部 所虜生口 皆分置諸州 其後復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및 축산의 반은 돌궐에게 내려주고 나머지는 입조할 때에 데려갔으며, 남자들은 모두 죽였다.<sup>7)</sup>

사료 1-①은 553년 돌궐에게 쫓긴 거란 부족 중 1만구가 고구려에 의탁하고 있는 기사이며, 1-②는 605년에 돌궐이 고구려와의 교역을 핑계로 거란을 평정한 기사이다. 이 두 기사 모두 거란이 일찍부터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②의 경우 거란이 본래 돌궐을 섬겼다고 하면서도 돌궐과 고구려의 교역로 상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고구려와 돌궐의 교역 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구려와의 접경으로 인한 접촉을 예상하게 한다. 게다가 더 나아가 거란이 이전까지 돌궐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 측으로 돌아선 돌궐과 함께 수의 번병으로 활동하지 않고, 여러 차례 營州를 침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 조정은 韋雲起로 하여금 돌궐 啓民可汗의 군사 2만을 이끌고 이들을 정벌하게 하고 있다.<sup>8)</sup>

615년 1월 돌궐 등의 諸夷가 수에 遣使朝貢할 때 거란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만,<sup>9)</sup> 수 양제의 고구려 정벌에 거란병이 번병으로 동원된 사실이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이 때 수가 정벌한 4만구의 거란병은 고구려와 우호관계에 있던 세력으로 파악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612년 정월에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에 앞서 내린 조서에 보면, 고구

7) 『舊唐書』 75 列傳25 韋雲起. “契丹本事突厥 情無猜忌 雲起既入其界 使突厥許云向柳城郡 欲共高麗交易 勿言營中有隋使 敢漏泄者斬之 契丹不備 去賊營百里 詐引南度 夜復退還 去營五十里 結陣而宿 契丹弗之知也 既明俱發 馳騎襲之 盡獲其男女四萬口 女子及畜產以半賜突厥 餘將入朝 男子皆殺之”; 『資治通鑑』 180 隋紀4 煬帝 大業 元年 8월 기사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다.

8) 이성제, 2005, 앞의 책, 205~208쪽에서는 이러한 정벌과 관련해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 이후 거란과 돌궐 등이 영주총관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9) 『隋書』 4 煬帝 大業 10年 正月. 612년 수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613년 이후 내부 반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615년 8월 始畢可汗이 수양제를 습격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짐작해 보건데 이때 견사조공하고 있는 거란은 돌궐의 세력권 아래 있던 세력으로 짐작된다.

려 정벌의 정당성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거란의 무리를 겸병하고 상습적으로 말갈을 복속하여 요서를 침범한다는 부분이 있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수대에는 거란의 전체 부락은 아니더라도 고구려와 접경하고 있는 일부의 세력은 돌궐의 항방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표 1〉 600~660년 거란과 수당의 관계

서력	중국	대상국	내 용	출 전
600	개황20	거란·돌궐	1월 거란이 돌궐, 고구려와 함께 수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조공	수서-본기
605	대업 1 (수 양제)	거란·돌궐	8월 거란의 영주 침략→위운기를 보내 돌궐병과 함께 고구려와의 교역을 구실로 거란 정벌	자치통감 구당서-위운기 열전
612	대업8	거란	1월 수의 고구려 정벌조서에 고구려의 죄상 중 하나로 거란의 무리를 겸병한다는 내용 있음	수서-본기
615	대업11	거란	1월 거란이 諸夷들과 함께 수에 전사 조공	수서-본기
618~626	무덕 1 ~무덕 9	거란	무덕 초에 당의 변경을 자주 침략	구당서-북적전
619	무덕 2 (고조)	거란	당의 平州 공격	구당서-북적전
621	무덕 4	거란·말갈	거란 별부의 추수인 손오조가 말갈 추장인 돌지계와 함께 당에 내부→영주성 옆에 안치	구당서-북적전
623	무덕 6	거란	군장 돌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고 공물을 바침	구당서-북적전

10) 『隋書』 4 楊帝 大業 8年 正月, “...乃兼契丹之黨 虔劉海戍 習鞞鞬之服 侵軼遼西...”

11) 李在成, 1996, 앞의 책, 190~231쪽에 의하면 거란 부족은 약 600년 경 이후에는 “10부연맹” 형태의 이전보다 큰 군사연맹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고구려에 1만가가 의탁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집단은 10부연맹 이전의 “小部聯盟” 형태의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구려와의 교역을 구실로 정벌당하는 집단은 이미 10부연맹의 군사적 연맹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던 거란 집단은 일부세력 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체였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성제 역시 이들 거란세력을 요서일대의 거란으로 파악하였다. (이성제, 2005, 앞의 책, 205~206쪽)

서력	중국	대상국	내 용	출 전
628	정관 2	거란	4월 당에 내속(君인 摩會)	구당서-본기 구당서-북적전
629	정관 3	거란	1월 渠帥(마회)가 당에 來朝	구당서-본기
641	정관 15	거란· 해·습	11월 營州都督 張儉이 소속 기병과 해·습·거란을 인솔하여 설연타의 동쪽 경계를 압박함	자치통감
644	정관 18	거란· 해·말갈	7월 營州都督 張儉을 보내 幽·營의 도독 병과 거란·해·말갈로 하여금 요동을 먼저 공격하여 고구려의 勢를 살피게 함 12월 당이 신라·백제·해·거란에게 조를 내려 고구려를 공격하게 함	구당서-본기
645	정관 19	거란· 해	고구려 공격 시 거란의 추장과 해의 수령을 징발해 종군케 함 당 태종이 反師할 때 영주에 이르러 거란의 군장 및 노인 등을 모아 물건을 내려주고 그 번장인 굴가를 좌무위장군으로 삼음	신당서-북적전
648	정관 22	거란· 해	거란의 대추장 육홀주 곡거가 무리를 이끌고 귀부하니 그 부를 현주로 삼고 곡거를 자사에 임명하고 영주도독부에 속하게 함 11월 거란의 窟哥와 해의 可度가 당에 내속→거란부 송막도독, 해부 요락도독 설치, 굴가는 좌령군장군겸 송막도독부 무극현남으로 삼고 이씨 성 사여	신당서-북적전 구당서-북적전 구당서-본기
654	영휘5 (당 고종)	거란· 말갈	10월 고구려 말갈 군사가 연합하여 거란을 공격→송막도독 이굴가가 신성에서 방어하여 연합군 패퇴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자치통감
658	현경3	거란	6월 당의 정명진과 설인귀가 고구려 공격에 거란병을 동원함	자치통감

600년 이후 당의 건국 초반인 武德 초까지 거란은 대체로 돌궐이나 고구려와 함께 군사행동을 하는 등 돌궐 내지는 고구려에 부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 1>에서 보듯 615년 1월 수에 견사조공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때 돌궐 역시 수에 견사조공하고 있어<sup>12)</sup> 615년의 견사조공은 돌궐을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 『隋書』 4 楊帝 大業 11年 正月.

그러나 621년 거란 別部 酋帥인 孫敖曹와 말갈 酋長 突地稽가 당에 내부 하면서 연이어 623년 거란의 君長 咄羅가 당에 조공하는 등 친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sup>13)</sup> 연이어 628년 거란의 君 摩訶가 부락을 이끌고 당에 來附하고 있으며,<sup>14)</sup> 629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에 조공하거나 당의 藩兵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sup>15)</sup>

그런데 돌궐은 621년 별부 추수인 손오조나 623년 돌라의 당에 대한 내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다가 628년 마희의 경우에만 당에게 항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6)</sup> 마희의 당으로의 내항은 627년 薛延陀·廻紇·拔野古 등 돌궐에 속해있던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뒤이어 可汗 일족 내부 갈등 심화 등으로 돌궐의 붕괴가 본격화 되면서<sup>17)</sup> 돌궐의 주변 제 민족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630년 돌궐의 몰락 이후 북방에서 설연타가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여 640년 무렵에는 돌궐을 대신해 철록 제부 및 말갈·습 등의 일부 북방 민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641년 11월 설연타가 북방의 제 민족을 거느리고 돌궐 공격을 도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sup>18)</sup> 이 사건에서 해와 거란은 설연타와 군사적 행동을 함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설연타를 막기 위한 당의 군사 징발에 응하고 있다.<sup>19)</sup> 또한 644~645년 고구려 정벌을 위한 군사징발에 응하는 등 완전히 친당적인 모습을 보인다.<sup>20)</sup>

13) 金嶺漢, 2010, 앞의 논문, 166~168쪽에서 620년 무렵에는 대체로 당이 안정되면서 주변의 군웅세력을 거의 제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621년 孫敖曹와 突地稽 집단의 내부로 이들을 영주성 근처에 안치시켜 영주방면의 경영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 결과 안정적인 통로가 확보되어 당이 고구려에 대해 622년 수나라 말 고구려로 넘어간 流人 송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14) 『舊唐書』列傳149 北狄傳.

15) 김지영, 2008, 「7세기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 변화」, 『만주연구』8, 68~69쪽.

16) 이 때 돌궐의 헐리가한은 당에 양사도와 거란의 교환을 제의하는데 이것은 거란의 이반에 의해 돌궐의 약체화가 조장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金子修一の 견해 역시 마희의 거란세력이 이 당시 돌궐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金子修一, 2001, 앞의 책, 208쪽.)

17) 金浩東, 1993, 앞의 논문, 133쪽.

18) 『舊唐書』3 太宗 貞觀 15年; 『구당서』열전 149 북적전.

19) 『資治通鑑』196 唐紀12 太宗 貞觀 15年.

648년 설연타의 멸망 이후 11월에 거란과 해 지역에는 송막도독부와 요락도독부의 설치로이들은 당의 기미부주에 완벽하게 편입되어, 654년 말갈과 고구려의 공격에도 강건하게 당 측에 서서 고구려에 대항하였으며,<sup>21)</sup> 658년 고구려 공격에도 변병으로 참여하고 있다.<sup>22)</sup>

이상에서 보듯 당이 건국한 이후 거란은 660년 이전까지는 충실한 당의 변병으로써 활동하고 있음을 중국측 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란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러한 거란의 태도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660년 이후 거란의 동향 변화

#### 1) 군대 동원으로 본 거란의 동향변화

당대에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기사는 모두 5건이 있다. 먼저 644년 가을 7월에 영주도독 張儉등을 보내 유·영주 이도독병 및 거란·해·말갈을 거느리고 요동을 먼저 공격하여 그 勢를 살피도록 詔를 내렸다는 기사와<sup>23)</sup> 644년 12월 신라·백제·해·거란이 道를 나누어 고구려를 공격하라는 조서,<sup>24)</sup> 654년 겨울에 고구려가 장수인 安固를 보내어 고구려·말갈병을 이끌고 거란을 공격하니, 송막도독 李窟哥가 막아내어 고구려가 신성에서 크게 패하였다는 삼국사기 기사와<sup>25)</sup> 658년 6월 程名振과 薛

20) 김지영, 2008, 앞의 논문, 74~75쪽.

21) 『資治通鑑』 199 唐紀15 高宗 永徽 5年 10月;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13年 10月.

22)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顯慶 3年 6月.

23) 『資治通鑑』 197 唐紀13 太宗 貞觀 18年 7月. “秋, 七月…甲午, 下詔遣營州都督張儉等帥幽·營二都督兵及契丹·奚·靺鞨先擊遼東以觀其勢”

24) 『資治通鑑』 197 唐紀13 太宗 貞觀 18年 12月. “十二月…甲寅, 詔諸軍及新羅·百濟·奚·契丹分道擊高麗”

25)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13年 10月; 『資治通鑑』 199 唐紀15 高宗 永徽 5年 10月. “冬, 十月…高麗遣其將安固將高麗·靺鞨兵擊契丹, 松漠都督李窟哥禦之, 大敗高麗於新城”

仁貴가 고구려의 赤烽鎮을 공격한 후 고구려가 대장 豆方婁로 하여금 방어케 하였는데, 정명진이 거란병을 이용해 고구려를 패배시켰다는 기사<sup>26)</sup>는 모두 거란이 당에 부용 되어 고구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들이다.

한편 이에 비해 667년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당으로 귀부할 때 거란 말갈병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sup>27)</sup> 거란이 말갈병과 함께 고구려 군사력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sup>28)</sup> 즉, 658년 6월까지 당 측에서 서서 고구려에 대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던 거란이 667년 이전 어느 순간에 고구려 내부에 편입된 병사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기사가 너무 적어서 거란이 고구려에 귀부한 시기나 그 규모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기사는 아니지만, 당과 거란의 관계 변화 기사 역시 고구려와 당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볼 때 660년 『신당서』와 『자치통감』 등에 나타나는 거란과 해의 반란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① 窟哥가 죽으니, 奚와 더불어 연달아 이반하니 行軍總管 阿史德樞賓 등이 松漠都督 阿卜固를 잡아서 東都에 바쳤다.<sup>29)</sup>

2-② 戊辰일(23일) 定襄都督 阿史德樞賓과 左武候장군 延陀梯眞과 居延

26)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顯慶 3年 6月. “六月, 營州都督兼東夷都護程名振·右領軍中郎將薛仁貴將兵攻高麗之赤烽鎮, 拔之, 斬首四百餘級, 捕虜百餘人. 高麗遣其大將豆方婁帥衆三萬拒之, 名振以契丹逆擊, 大破之, 斬首二千五百級.”

27) 『三國史記』 49 列傳 9 蓋蘇文 列傳, 子 男生. “子 男生 字元德…男生走保國內城 率其衆 與契丹靺鞨兵附唐…”

28) 姜仙, 2003, 앞의 논문, 98~103쪽에서도 지적하듯 이때 남생과 함께 당에 귀부하고 있는 거란병은 요서에 있던 거란의 주력은 아니고 이전부터 고구려에 내부해 있던 일부세력이었을 확률도 있다. 이재성은 이들을 660년 이후 당의 진압을 피해 고구려로 망명한 일부 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재성, 2011, 앞의 논문, 207~208쪽)

29) 『新唐書』 219 列傳 144 北狄傳. “窟哥死, 與奚連叛, 行軍總管阿史德樞賓等執松漠都督阿卜固獻東都”

都督 李合珠를 함께 冷峴道<sup>30)</sup>행군총관으로 삼아 각기 소속부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반한 奚를 토벌하게 하였고…해는 얼마 후에 바로 사자를 파견하여 항복하였다. 다시 (아사덕)추빈을 沙磚道행군총관으로 삼아서 契丹을 토벌하고 거란의 松漠도독인 阿卜固를 사로잡아 東道로 보냈다.<sup>31)</sup>

2-①의 내용은 열전의 특성상 그 확실한 연도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2-②의 내용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료는 660년 이 굴가의 죽음과 함께 거란이 당에 반기를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당이 백제 정벌을 단행하기 위해 3월에 행군총관을 모두 편성하고 난 바로 직후에 당의 배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거란과 해의 이반사건은 660년 5월 阿卜固를 사로잡음으로써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신당서』 본기 12월조에 당이 백제 정벌 이후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행군총관을 편성한 바로 뒤의 기사에 연이어 아사덕추빈이 해와 거란과 전투하여 패퇴시킨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즉, 唐의 백제 정벌이 궁극적으로 고구려 정벌을 위한 한 수순이었다고 한다면,<sup>33)</sup> 이 시기의 거란의 지속적인 이반의 반복은 고구려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660년이 되면서 일찍부터 당에 귀부하여 충실한 당의 파트너로서

30) 『資治通鑑』 기사의 각주에 보이듯 冷峴道는 즉 실제 『新唐書』 北狄傳 契丹의 지리부분을 설명할 때 보이는 冷陁山(=冷徑山)을 향한 행군총관명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唐代의 행군총관명은 실제 지역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31)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顯慶 5年 5月. “戊辰, 以定襄都督阿史德樞賓·左武候將軍延陀梯眞·居延州都督李合珠並爲冷峴道行軍總管, 各將所部兵以討叛奚…奚尋遣使降. 更以樞賓等爲沙磚道行軍總管, 以討契丹, 擒契丹松漠都督阿卜固送東都”. 『新唐書』 3 高宗 顯慶 5年 5月 戊辰조에도 아사덕추빈을 사전도행군총관으로 삼아 거란을 정벌하였다는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32) 이계성, 2005, 앞의 논문, 162~163쪽에서 이러한 거란의 이반에 대해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거란의 반란과 고구려의 외교활동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이계성 역시 이러한 이반의 원인을 당 내부의 지나친 군사정벌에서만 찾았을 뿐 고구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이계성, 2011, 앞의 논문, 203~204쪽)

33) 金瑛河, 2000,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 唐의 단계적 戰略變化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110, 45쪽에서 당의 백제 정벌은 평양 직공책을 수행하기 위한 후방 전략거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역할 하던 거란과 해가 갑자기 당에서 돌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연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철록의 제부들 역시 당에서 이반하여<sup>34)</sup> 663년까지 당의 북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은 660년 이후 북방 제민족들의 대당 관계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660년 이후 북방 제민족의 이반에 대한 당의 정벌

서력	중국	대상국	내 용	출 전
660	현경 5	거란·해	굴가가 죽자 거란이 해와 더불어 모반→ 아사덕추빈 등이 송막도독 아복고를 생 포하여 동도로 이송 가도자가 죽자 해가 마침내 배반→아사 덕추빈과 이합주로 하여금 정벌케 함 5월 阿史德樞賓으로 하여금 거란 정벌케 함 12월 아사덕추빈이 해·거란 격파	신당서-본기 신당서-북적전 자치통감
		철록	8월 鄭仁泰가 철록 제부(실결·발야고· 복골·동라) 격파	신당서-본기
661	용삭 1	해	최여경 등으로 해를 토벌케 하니 해가 두 려워 항복→해의 왕인 필제를 참함	신당서-북적전
		철록	정인태, 소사업, 아사나충으로 하여금 철 록 정벌	신당서-본기
662	용삭 2	철록	3월 정인태가 天山에서 철록 격파	신당서-본기 자치통감
663	용삭 3	철록	1월 정인태 등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철 록의 남은 종족 정벌하여 모두 평정	구당서-본기 자치통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거란이 당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이 상

34) 『新唐書』 3 高宗 顯慶 5年 8月 壬午. “壬午, 左武衛大將軍鄭仁泰及悉結·拔也固·僕骨·同羅戰, 敗之”

35) 노태돈, 2009, 『삼국통일 전쟁사』, 서울대출판부, 47쪽에서는 철록 반란 진압을 위해 소정방군의 우익이었던 계필하력군을 철록쪽으로 파병함으로써 소정방군이 평양성에서 고립되었다고 보았으며, 김진한 역시 철록 제부의 침입으로 인한 고당전쟁에서의 당의 후퇴를 지적하고 있다.(金鎭漢, 2010, 앞의 논문, 210쪽). 또한 이재성은 한발 더 나아가 임야상의 사망이나 방효태의 사수전투 패배 등 군사적인 일련의 타격 원인으로 회흘을 위시한 이들 북방민족의 이반을 지적하고 있다.(이재성, 2011, 앞의 논문, 206~207쪽)

황이 646년 설연타가 당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사실이다.<sup>36)</sup>

- 2-③ (645) 고려가 駐驛山에서 패배함에 미쳐 막리지가 말갈로 하여금 眞珠를 설득하게 하여 厚利로 유혹하였으나 진주가 두려워 복종하면서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9월 임신일(7일)에 진주 가한이 죽었다.<sup>37)</sup>
- 2-④ 황제가 고려를 정벌하면서 右領軍 대장군 執失思力으로 하여금 돌궐인을 거느리고 夏州의 북쪽에 주둔하며 설연타를 대비케 하였다. 설연타의 多彌可汗이 즉위하자, 황제가 출정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군사를 이끌고 河南을 노략질하니 황제가 左武侯 中郎將 長安의 田仁會를 보내어 (집실)사력과 함께 군사를 합해 이들을 정벌케 하였다. … 설연타가 대패하니 600여 리를 쫓아서 사막의 북쪽에 위세를 빛내고 돌아왔다. 다미(가한)가 다시 병사를 발하여 하주를 노략질하였다.<sup>38)</sup>

즉, 645년 8월 당태종의 친정으로 인해 정세가 급박해진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말갈을 매개로 설연타를 厚利로써 꺾었으나 진주비가가한이 감히 동요하지 못했다는 기사와 별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45년 막리지인 연개소문의 교섭 당시에는 선불리 움직이지 않던 설연타가 645년 9월 진주비가가한의 죽음과 함께 645년 12월 당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sup>39)</sup>

36) 金善昱, 1985, 앞의 논문, 16쪽; 서영교, 2003,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 -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군사』49, 220~221쪽에서는 이러한 설연타의 공격을 고구려의 외교교섭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37) 『資治通鑑』 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8月. “及高麗敗於駐驛山, 莫離支使靺鞨說眞珠, 啗以厚利, 眞珠慚服不敢動. 九月, 壬申, 眞珠卒”

38) 『資治通鑑』 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12月. “上之征高麗也, 使右領軍大將軍執失思力將突厥屯夏州之北以備薛延陀. 薛延陀多彌可汗既立, 以上出征未還, 引兵寇河南, 上遣左武侯中郎將長安田仁會與思力合兵擊之. … 薛延陀大敗, 追奔六百餘里, 耀威磧北而還. 多彌復發兵寇夏州.”; 『新唐書』 2 太宗 貞觀19年 12月 己未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간략하게 실려 있다.

39) 徐榮教, 2003, 앞의 논문, 214~221쪽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배후에는 연개소문의 교섭이 작용했으며 나아가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의 철군 이유를 설연타의 하주 공격에서 찾고 있다. 노태돈 역시 설연타 진주가한의 죽음 이후 설연타의 심상치 않은 동향이

즉, 설연타의 진주와 거란의 굴가라는 친당적 최고 수장의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친당 노선에서의 이탈.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모두 고구려의 형세가 상당히 위급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 다 연개소문 집권 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설연타의 이반을 고구려의 적극적인 외교교섭의 결과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거란의 660년 반란 역시 설연타 때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적극적인 외교교섭의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두 경우의 차이는 설연타의 경우 말갈을 매개로 하였으나, 거란과 해의 경우엔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던 급박한 시점에서 당이 거란과 해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의 일부를 급히 빼냄으로써<sup>40)</sup> 고구려는 급박한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660년 이후 고구려에 대한 공격에 거란병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sup>41)</sup> 이것이 반드시 고구려의 외교교섭의 결과였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거란이 당의 번병에서 빠짐으로써 고구려가 얻는 북쪽 변경지역의 안정은 고구려의 남쪽이 불안한 상황에서 고구려에게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660년 거란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의 경우 역시 설연타나 거란과 같은 형태로 당에 의해 거란과 같은 시기 기미부주로 편제되고 기미부주 편제 당시 요락도독에 임명된 가도자의 죽음<sup>42)</sup>과 함께 반란이 일어나

당의 고구려 철군 원인의 하나였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설연타의 움직임을 연개소문의 지속적인 정책의 효과로 평가하였다. (노태돈, 2009, 앞의 책, 105~107쪽)

40) 이재성, 2011, 앞의 논문, 198쪽; 김진한, 2010, 앞의 논문, 199쪽.

41) 『資治通鑑』에는 661년 4월 고려 공격에 諸胡兵이 이용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호병은 『舊唐書』 63 列傳 13 蕭瑀 열전에서 소우의 형인 蕭鈞의 아들인 소사업에 관한 서술에서 유추해 보는데 돌궐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667년 『三國史記』 권 제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7년 겨울 10월에 余同兮 춘주 江深과 함께 평양에서 한성으로 서신을 전하기 위해 움직인 거란 기병 80여명은 일단 부여성이 함락된 이후이므로, 남생과 함께 투항한 세력이거나 부여성 함락 이후 당에 합류한 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2) 각각 송막도독과 요락도독에 임명되었던 거란과 해의 굴가와 가도자가 같은 시기에 죽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좀 더 억측을 가해보자면 이들 두 민족의 반대적인 세력들이 친당적인 집권 수장을 주살하거나 몰아내는데 고구려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고 있으며, 거란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멸망시까지 군대의 징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같이 고구려의 적극적 교섭을 받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sup>43)</sup>

## 2) 당의 부여도 신설로 본 거란의 동향변화

고구려의 거란에 대한 적극적 외교책으로 인해 거란이 친고구려적 관계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는 부여도라는 당의 고구려 진군로 신설이다. 이러한 당의 진군로는 행군총관명 앞에 붙는 ~道行軍(大)總管을 통해 그 방향을 알 수 있다. 行軍제도는 北周에서 시작되어 隋와 唐을 거쳐 운영된 제도인데, 이 때 ~道는 출정하는 전투 지구명이나 작전 방향명 혹은 전투를 벌일 城의 명칭이 관칭되었다.<sup>44)</sup> 이러한 행군총관명의 편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唐대에 고구려를 공격할 때 사용된 행군총관명은 대체로 실제 공격할 지점을 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sup>45)</sup> 이를 통해 진군로를 짐작해 볼 수 있다.<sup>46)</sup>

3-① 甲午일(24일)에 형부상서 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江州, 淮州, 嶺州, 峽州의 군사 4만을 인솔하고, 長安, 洛陽에서 모병한 군사 3천과 전함 500척을 이끌고 萊州에서 바다에 배를 띄어 平壤으

원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두 민족이 모두 당에 이반하여 고구려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구려 멸망시까지 당에 군사적 원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43) 이러한 맥락에서 660년 8월부터 663년까지의 悉結·拔也固·僕骨·同羅 등 철록 계부의 이반 역시 고구려의 교섭의 결과를 상징해 볼 수 있다.(김지영, 2008, 앞의 논문, 82쪽)

44) 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臺北市, 6~7쪽.

45) 당의 고구려 침공 시 행군총관명

연도	행군총관명	행군총관	전거
645	요동도행군대총관	이세적	자치통감, 구당서, 삼국사기
	평양도행군대총관	장량	
647	청구도행군대총관	우진달	자치통감, 신당서, 삼국사기
	요동도행군대총관	이세적	
648	청구도행군대총관	설만철	자치통감, 신당서, 삼국사기

로 향하게 하였다. 또한 태자첨사 좌위술李世勣을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보병과 기병 6만과 蘭州, 河州 2주에 있는 降胡를 인솔하여 遼東으로 나아가게 하였는데 양군이 합세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였다.<sup>47)</sup>

당 태종이 645년 고구려를 공격할 때 行軍總管名을 보면,李世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서 고구려로 진군하였다.<sup>48)</sup> 그런데 3-①의 사료에서 보듯 이 때 2개의 행군대총관을 편성 한 후 그들을 각각 행군총관명에 관칭된 바로 그 곳을 향하여 진군하도록 하고 있다.<sup>49)</sup>

연도	행군총관명	행군총관	전거
660	패강도행군대총관	계필하력	자치통감, 신당서, 삼국사기,
	요동도행군대총관	소정방	
	평양도행군대총관	유백영	
	누방도총관	정명진	
661	부여도행군총관	소사업	자치통감, 신당서, 구당서(요동·평양·패강도행군총관 만 기록)
	패강도행군총관	임아상	
	요동도행군총관	계필하력	
	평양도행군총관	소정방	
	부여도행군총관	소사업	
	누방도행군총관	정명진	
662	옥저도행군총관	방효태	자치통감
666	요동도행군대총관	이세적	자치통감, 신당서, 구당서
668	비열도행군총관	유인원	자치통감

- 46) 隋煬帝 시기에 고구려 공격 때 편성된 행군총관명은 좌군과 우군 각각 12군씩 총 24군으로 숫자로 볼 때나 그 명칭과 실제 진군방향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관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唐대의 행군총관명은 보다 실제 전투지역, 즉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隋나라 때 편성된 진군군과 행군총관명은 『資治通鑑』 隋紀 煬帝 大業 8년조 참고.
- 47) 『資治通鑑』 197 唐紀13 太宗 貞觀 18年 10月 甲午. “甲午, 以刑部尙書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 帥江·淮·嶺·峽兵四萬, 長安·洛陽募士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趨平壤, 又以太子詹事·左衛率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帥步騎六萬及蘭·河二州降胡趣遼東, 兩軍合勢並進”
- 48) 『資治通鑑』 197 唐紀13 太宗 貞觀 18年; 『舊唐書』 3 太宗紀 下 貞觀 18年, 199 列傳149 上 東夷 高麗傳;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9 寶藏王 3年 11月
- 49) 대체로 唐대에는 행군총관명에 명시된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음은 660년 백제 정벌 시 나타나는 행군총관명 중 하나인 ‘靺夷道行軍總管’의 ‘靺夷’가 실제 백제의 지역이었음을

또한 이후 고구려에 대한 국지전을 전개하면서 편성된 행군총관명을 살펴해보자면, 647년 3월 牛進達이 靑丘道行軍大總管에 이세적이 다시 遼東道行軍大總管에 임명되고 있으며,<sup>50)</sup> 648년 정월에는 薛萬徹이 靑丘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되어<sup>51)</sup> 고구려 공격을 행하고 있다.

고종의 즉위 이후에도 660년 고구려 공격에서 契苾何力을 涇江道行軍大總管으로 蘇定方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劉伯英을 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程名振을 鏐方道總管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있다.<sup>52)</sup>

그런데, 660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란과 해의 갑작스러운 이반과 이들에 대한 정벌이 완료된<sup>53)</sup> 이후인 661년 정월부터 고구려 정벌을 위한 진군로에 扶餘道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sup>54)</sup> 그 바로 뒤인 661년 4월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위해 편성된 6군 총관명에도 부여도가 추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68년 고구려 멸망전에서는 구체적인 행군총관명이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666년 12월 이적이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서 6총관병을 거느리고 고려를 정벌하러 갔다는 서술에서 역시 부여도가 편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또한 실제 전투에 있어서도 668년 2월 薛仁貴가 부여성을 쳐서 빼앗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56)</sup>

그런데 이러한 부여도에 대하여 조금 더 뒤 시기의 서술이기는 하지만 『신당서』 복적 발해조의 서술부분이 주목된다.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靑夷 지역명과 관련해서는 尹善泰, 2006, 「百濟 泗泚都城과 ‘靑夷’ - 木簡으로 본 泗泚都城의 안과 밖」 『東亞考古論壇』2, 忠淸文化財研究院 참조.

- 50) 『資治通鑑』 198 唐紀14 太宗 貞觀 21年; 『新唐書』 2 本紀 2 太宗 貞觀 21年;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6年
- 51) 『新唐書』 2 本紀 2 太宗 貞觀 22年;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7年
- 52)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顯慶 5年 12月; 『新唐書』 3 本紀 3 高宗 顯慶 5年 12月;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19年 11月
- 53)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顯慶 5年 5月; 『新唐書』 3 本紀 3 高宗 顯慶 5年 5月, 12月
- 54)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龍朔 元年 正月; 『新唐書』 3 本紀 3 高宗 龍朔 元年 正月
- 55) 『新唐書』 3 本紀 3 高宗 乾封 元年 12月
- 56) 『資治通鑑』 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 2月; 『新唐書』 3 本紀 3 高宗 總章 元年 2月;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27年 2月

3-② 부여 故地를 扶餘府로 삼았는데, 항상 勁兵을 주둔시켜 거란을 막았다...부여는, 契丹道이다.<sup>57)</sup>

3-②에 의하면 부여부는 거란을 막는 주요거점이었던 것이다. 물론 같은 사료 뒷부분에 이런 부여 쪽 길을 거란도<sup>58)</sup>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발해 중심부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고구려 지역을 향해서 행군로를 정할 때는 역시 부여성을 향한 진군로명은 당연히 거란도가 아닌 부여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야말로 고구려의 부여성과 거란과의 밀접성을 방증해주는 자료로 생각된다.<sup>59)</sup>

그렇다면 660년 거란이 당에서 이반된 이후인 661년 이후부터 갑자기 고구려 침공에 거란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부여도가 새롭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당의 고구려 침입에 있어 이전과는 달리 거란에 대한 공격 혹은 방어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것은 결국 거란과 고구려가 661년 이후 유사시 군사적인 연합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거란을 포함한 친당적 북방세력이 660년을 전후하여 당에서 이탈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의 실패 이후 당은 요동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그다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고<sup>60)</sup> 오히려 지속적인 당의 공격을 방어해 내고 있던 고구려의 군사력이 주변 제 민족들에게 보다 높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당 내부의 세력변동과 그로 인한 혼란을 들 수 있다.<sup>61)</sup> 655

57) 『新唐書』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扶餘故地爲扶餘府 常屯勁兵扞契丹…扶餘, 契丹道也.”

58)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세계절, 413쪽에서도 이 거란도를 거란으로 통하는 교통로로 보고, 이 지역과 거란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 고구려 때에서도 이 방면에 거란과 관련된 교통망과 전진기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59) 余昊奎,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 91, 190쪽에서도 부여성을 고구려가 거란의 침공을 방어하고 말갈족의 이탈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군사방어 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60) 金瑛河, 2000, 앞의 논문, 40~41쪽

년 武황후 책봉이후 660년 10월이 무황후 지지세력이 당 내부의 정권을 완전 장악하면서 무황후의 반대파를 축출해 내고 있다.<sup>62)</sup> 이러한 당 중앙의 정치 불안이 외부에 있던 제 민족들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킨 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sup>63)</sup>

한편 고구려의 경우 계속되는 대당전쟁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었고, 연개소문의 오랜 독재로 인해 불만 및 이탈 세력이 늘어나고 있었다.<sup>64)</sup>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외 교섭을 통해 당과의 전쟁에 있어 군사적인 원조나 당의 후방 교란 등 다양한 타개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45년 당의 고구려 정벌 이후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북방민족에 대해 대외교섭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660년을 전후한 시기에 거란을 비롯한 일부 북방 민족이 당에서 이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660년 이후 북방 제민족들의 다수는 고구려에 유리한 군사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백제 정벌 이후 고구려 정벌에 대한 총력전을 개시하려던 당이 고구려 정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당은 고구려 최고지배층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남생의 망명이 이루어지는 666년 이후에야 비로소 고구려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할 수 있었다. 즉, 이것은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660년을 전후한 시기 내부 결속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당을 제외한 주변 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책의 추진 결과, 백제의 멸망 이후에도 8년 가까운 기간을 당의 공세에도 버텨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61) 김호동, 1993, 앞의 논문, 175쪽.

62)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顯慶 5年

63) 李成制, 2005, 앞의 논문, 163~164쪽에서는 이러한 북방민족의 이탈을 고구려 침공 실패의 결과로 보았으며, 이재성은 당의 지속적인 고구려 정벌로 인한 북방민족의 인적·물적 부담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재성, 2011, 앞의 논문, 203~204쪽)

64) 李文基, 2008,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韓國古代史研究』 50, 79~89쪽.

## 5. 맺음말

당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와 당, 돌궐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630년 돌궐의 힐리가한 생포를 전후해 당은 북방민족들에 대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고구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개소문 정권이 등장하는 642년 이전까지는 고구려와 당은 일단 우호적인 외교책을 통해 전쟁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연개소문 집권 이후 강경한 당의 정벌의지로 인해 당과의 외교관계는 악화되어 갈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구려 정벌의 명분이 마련된 642년에도 당은 북쪽 설연타의 대두 등으로 인한 북방의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쉽사리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새로운 중국의 통일왕조로써 주변 국가들에 대한 당 중심의 세력 재편을 위해서 고구려는 반드시 정벌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에 645년 당 태종의 친정이 단행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주필산전투 이후 급박한 정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설연타에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인지 혹은 고구려가 당태종의 공격을 무사히 막아낸 결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 당 태종이 고구려에서 군대를 미처 다 돌리기도 전에 설연타의 이반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은 일부의 병력을 고구려 전선에서 빼 내어 설연타와의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은 고구려로 하여금 북방 제민족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섭을 진행하게 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645년 이후 계속되는 당과의 전투로 인해 고구려 내부의 자원은 고갈되어 갔고, 연개소문 독재로 인한 정치적 모순 역시 증가되면서 고구려 내부의 결속이 약화되어 갔다. 그 결과 66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고구려 내부 분열과 이탈이 가속화되어 갔으며, 그럴수록 고구려는 주변 국가나 북방 제 민족들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645년 이후 지속적인 당의 충공세에도 무너지지 않은 고구려의 군사력은 660년을 전후하여 당 중앙의 혼란으로 인해 혹은 북방 제 민족에 대한 지나친 징발로 인해 당에 대한 불만을 지닌 북방 제 민족들이 고구려의 편으로 돌아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660년 이후 거란 및 해, 철륵, 제부 등 북방 제민족의 대다수가 당에서 이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백제 정벌을 전후하여 고구려를 직접 공격하던 당은 일부의 병력을 대고구려 전선에서 빼내어 북방에 투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거란의 이반은 645년 이후 고구려 공격에 빈번하게 동원되던 거란병이 더 이상 고구려 공격에 동원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구려 공격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북쪽 후방 지역까지 당군이 공격하고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것은 결국 당군 전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당과의 전투에서 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고구려의 지속적인 외교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고구려는 물적·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내부 결속이 약화되어 이탈이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뛰어난 외교정책의 구사로 연개소문 아들들의 내분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당의 충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지 전개에서 중국 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정된 자료를 이용해 무리한 추정을 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많은 조언을 바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사료

- 『舊唐書』, 1997년 3월 北京 6차 인쇄판, 中華書局.  
 『北史』, 1997년 3월 北京 6차 인쇄판, 中華書局.  
 『隋書』, 2000년 11월 北京 7차 인쇄판, 中華書局.  
 『新唐書』, 1997년 3월 北京 6차 인쇄판, 中華書局.  
 『譯註 三國史記』1 校勘 原文篇, 2002년 5월 수정 3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資治通鑑』, 1995년 7월 湖北 9차 인쇄판, 中華書局.

### 2. 연구 논저

- 姜 仙, 2003, 『高句麗와 北方民族의 관계 연구』, 숙명여대학사학위논문.  
 金善昱, 1985,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 - 靺鞨을 中心으로」 『백제연구』16.  
 金瑛河, 2000,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 唐의 단계적 戰略變化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110.  
 金賢淑, 2003, 「6~7세기 高句麗史」에서의 靺鞨 『강좌한국고대사』10.  
 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游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137.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김종복, 2005, 「高句麗 멸망 전후의 靺鞨 동향」 『북방사논총』5.  
 김지영, 2008, 「7세기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 변화」 『만주연구』8.  
 金嶺漢, 2010,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_\_\_\_\_, 2009, 『삼국통일 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영교, 2003,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 -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군사』49.  
 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臺北市.  
 손영중, 1995 『고구려사』, 민족문화.  
 余昊奎,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91.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46호.  
 李文基, 2008,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韓國古代史研究』50.  
 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 對隋·唐戰爭期 契丹의 動向과 그 意味」 『북방사논총』5호, 고구려연구재단.  
 \_\_\_\_\_,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李仁哲, 2001, 「6~7世紀의 靺鞨」 『국사관논총』95.

- \_\_\_\_\_, 2004, 「7세기 高句麗 軍事活動의 주요 變數」 『신라문화』24.
- 李在成, 1996,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史.
- \_\_\_\_\_,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26, 중국고중세사학회.
-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 研究」 『부산사학』14 · 15.
- \_\_\_\_\_, 2005, 「주민구성으로 본 계승관계」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 연구총서 7』,  
고구려연구재단.

## ■ Abstract ■

The Koguryo(高句麗) and The Situation Changes of  
 Kitan(契丹) in the Middle of the 7<sup>th</sup> Century  
 -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Alienation of Kitan in 660 Years -

Kim, Ji - Young

The trend of the northern races including Kitan(契丹) was so important factor in the war between Koguryo(高句麗) and Tang(唐) in the 7th century. Specially Kitan(契丹) wa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northern races because it was a front line of Koguryo(高句麗) and Tang(唐) geographically and performed a role as a member of Koguryo(高句麗) military with Malgal(靺鞨).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Tang(唐), Koguryo(高句麗), Tang(唐) and Togyul(突厥) held each other in check. But after capturing of Kahn Hilly(詰利可汗) of Togyul(突厥) in 630 years, Tang(唐) had extened it's influence toward the northern races and that would have made Koguryo(高句麗) feel the sense of the crisis. But until the appearance of Yeon Gaesomun government in 642 years, Koguryo(高句麗) and Tang(唐) had kept friendly dipomatic relation and reduced the pressure of the war.

But after Yeon Gaesomun came to power, there was no way but to aggravate diplomatic relation with Tang(唐) because of Tang's hard-line policy and conquest will toward Koguryo(高句麗). However, although the cause for the conquest of Koguryo(高句麗) was designed, as the northern state of stability was not secured such as the rise of Seolyeonta(薛延陀), the conquest of Koguryo(高句麗) was not easy to be carried out. Nevertheless Koguryo(高句麗) had been the target should be conquered to set the reorganization of power near Tang(唐) as an unified dynasty.

After all, Taizong(太宗) of Tang(唐) started to invade Koguryo(高句麗) di-

rectly in 645 years and after the combat of Juphil Mountain(駐蹕山), Koguryo(高句麗) tried to do diplomatic contact with Seolyeonta(薛延陀) to change the situation. It's not clear that the rebellion of Seolyeonta is from the result of this diplomatic effort or the result of Koguryo(高句麗)'s remarkable prevention against the attack from Taizong(太宗) of Tang(唐), but the rebellion of Seoyeonta was happened before Tang withdrew troops from Koguryo(高句麗). as a result, Tang had no choice but to poach some troops for the combat with Seolyeonta.

This experience would made Koguryo(高句麗) strengthen aggressive and continuous diplomatic activity with the northern races. Furthermore after 645 years, the internal resources in Koguryo(高句麗) had been exhausted because of the continuous war with Tang and the internal unity had been weakened because of the political contradiction from the dictatorship of Yeon Gaesomu.. As a result, the internal division and breakaway of Koguryo(高句麗) was accelerated and made Koguryo(高句麗) strengthen the diplomatic relation with near countries or northern races more aggressively.

Meanwhile, the military power of Koguryo(高句麗) which had not been collapsed from full court press from Tang after 645 years was one reason to make the northern races\_which had discontent to Tang because of internal confusion in Tang or severe requisition toward the northern races turn to Koguryo(高句麗) side after 660 years. As a result, Many northern races such as Kitan(契丹), Hae(奚) and Chulluk races(鐵勒 諸部) alienated against Tang after 660 years

At that time, Tang which had been attacked Koguryo(高句麗) directly after conquering BaekJe Should take some of it's troops out from the front line of Koguryo(高句麗) to the northern line. Specially the rebellion of Kitan(契丹) after 645 years had made not just Tang can't draft Kitan(契丹) soldiers but also Tang should defend it's northern line it had never concerned. That means the dispersion of the military power. With this situation, Koguryo(高句麗) could hold out for a long time and this can be estimated as a success of diplomatic activity of Koguryo(高句麗). In other words, Koguryo(高句麗) could keep off Tang through outstanding diplomatic policy, despite of the exhaustion of the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and the weakening of internal unity until internal conflict among the sons of Yeon Gaesomun.